



## 인쇄문화산업5개년계획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 300여 인쇄인 참석해 뜨거운 관심 보여 5대과제 20개 사업 통해 인쇄문화산업 발전방안 제시

인쇄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에 300여명이 넘는 인쇄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9월 26일 호텔PJ에서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계획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문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을 비롯해 홍우동 인협 명예회장, 민재기 전 인협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남원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장,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조합이사장, 조정석 전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양철우 교학사 회장 등 300여명이 넘는 인쇄인들이 참여했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공청회 1부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과 윤문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부 발제 및 토론에서는 오성상 신구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토론에는 부길만 동원대학교 교수, 이문학 인천대학교 교수, 박희준 대구경북인쇄조합 이사장, 황정해 청우 대표가 참여했다. 사회는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가 맡았다.

김남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쇄진흥계획 5개년계획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인쇄인과 오늘 발제를 맡으신 오성상 교수님과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 공청회는 인쇄문화산업의 백년지대계를 설정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 오늘 공청회를 참고해 수정작업을 한 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계획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다. 오늘 공청회가 인쇄문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쇄가 우리나라의 수출전위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쇄인들의 응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문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은 “2007년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에서는 5년 단위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이 수립되면 2012년부터 5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공청회는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진흥계획(안)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이 될 것이다. 오늘 공청회에서 인쇄문화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많은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 인쇄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오성상 교수, 5대과제 20개 사업 제안**

이어진 2부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계획 연구결과 발표에서 오성상 교수는 5대과제 20개 사업을 제안했다. 5대 과제로는 ▲인쇄문화산업진흥 인프라구축 ▲친환경인쇄 및 품질제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및 시장혁신 ▲직지홍보 및 인쇄문화가치 확산으로 구분했다.

5대과제에 대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인쇄문화산업진흥 인프라구축 부문에서는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인쇄산업단지 내 지원센터 건립지원 ▲인쇄박물관 건립지원 ▲인력양성사업 지원 ▲정보인프라 및 연구사업 지원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과 윤문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

친환경인쇄 및 품질제고 부문에서는 ▲친환경인증제 도입지원 ▲친환경인쇄소재 개발지원 ▲인쇄품질 표준화사업 지원 ▲그래픽아츠디자인관리사제도 도입을 세부과제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강화 부문에서는 ▲인쇄수출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한류활용 인쇄물 수출지원 ▲국제교류사업 지원을, 기술개발 및 시장혁신 부문에서는 ▲인쇄기술 개발지원 ▲인쇄공용서체 개발지원 ▲기술도입 및 경영컨설팅 사업지원 ▲인쇄설비 현대화 지원을 제시했다. 직지 홍보 및 인쇄문화 가치 확산 부문에서는 ▲직지 및 인쇄문화 국내외 전시회 지원 ▲직지 문화상품 개발 지원 ▲국제인쇄산업전시회 개최지원 ▲코리아 프린팅페어 개최지원 등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 지정토론서 인쇄금고 설치 및 수출지원 확대 요구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부길만 동원대학 교수는 “필요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생략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인쇄문화산업 종사자의 복지와 기반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이에 인쇄인 금고를 설립하여 인쇄사에 대한 자금 저리 융자 등의 대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쇄박물관 건립은 금속활자 발명국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생략되어 있다. 인쇄박물관의 위치, 규모, 운영계획 등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학 인천대학교 교수는 “인쇄문화진흥위원회는 인쇄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쇄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다수의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영입해야 하며,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는데 자문하고 충고하는 역할 그리고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살피는 역할도 해야 한다. 또한 대한인쇄문화협회에 설치된 인쇄물수출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제품을 해외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준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쇄산업은 불황은 그 여파가 빨리 오고 호황은 늦게 오는 제조업이면서도 전형적인 서비스업이다. 인쇄인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일감 부족, 원부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영업환경 열악, 협력생산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 장비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 기술력과 운영자금의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인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인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건립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정혜 청우 대표는 “인쇄물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해외전시회에서 한국인쇄관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한국인쇄관 조성을 통해 한국인쇄문화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수출인쇄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영세한 인쇄업체를 위해 대한인쇄문화협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쇄물수출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명실상부한 인쇄수출지원센터가 되도록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쇄는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근간으로 정부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는 인쇄인들. 사진시계방향으로 구자빈 이사장, 남원호이사장, 반덕환사장, 정순권사장, 서병기사장, 홍우동 인협 명예회장

### 인쇄인들 다양한 질문 쏟아져

발제와 지정토론에 이어 진행된 참석자 토론에서 많은 인쇄인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며 답변은 인쇄진흥발전계획(안) 수립에 참여했던 유창준 인협 전무이사가 담당했다.

우선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조합 이사장은 질문에서 “최근 교과서를 전자책으로 대체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종이를 통해 읽고 쓰는 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으로 인쇄교과서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인쇄인들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IT의 발전으로 인쇄가 축소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IT의 핵심인 QR코드를 이용해 오히려 인쇄업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계획을 인쇄협회가 주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머지않아 교과서가 전자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문화부와 대한인쇄문화협회 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출판 및 관련단체들과 협의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QR코드의 경우 공정회 자료집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연구 원본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남원호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은 질문에서 “인쇄역사박물관은 주자소 터가 있는 필동에 건립되어야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인쇄인들의 시급한 과제인 조달청 요금제도, 인쇄업 허가제, 직접생산확인제도 등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인쇄역사박물관은 주자소 터가 있는 중구 필동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연구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상의 부분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문화부에도 그 부분을 어필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요금제도, 인쇄업 허가제문제, 직접생산확인제도 등의 문제는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덕환 세진맥피아 사장은 “직지의 홍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인쇄인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다. 인쇄문화 발전을 위한 계획들이 보다 많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직지보다 인쇄발전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직지에 대한 홍보는 일정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체 20개 과제 중 한 두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인쇄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앞으로도 인쇄부분을 더욱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순권 서강에드넷 사장은 “환경인증이 영세 인쇄업체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세계적인 트렌드가 친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증제도 수립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친환경인쇄는 인쇄용지 및 잉크에 대한 부분이 더 크며, 되도록 인쇄사에 비용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 큰 틀에서 친환경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우동 인협 명예회장은 “인쇄역사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작다. 이에 대한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초기 인쇄역사관 건립을 논의할 때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문화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병기 정민프린테크 사장은 “인쇄업계에는 4단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다. 친환경인쇄나 인쇄교육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전에도 단체 간 중복사업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 다만 환경 및 품질인증의 문제는 시행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 협회에서 하는 일은 기준을 세우는 작업일 뿐이다.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어느 단체에서 진행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그 때 지금 마련한 기준을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인력교육사업의 경우 지원단체가 서울시, 문화부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교육 커리큘럼은 다르게 하고, 시장개척의 경우도 지역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제자인 오성상 교수는 “오늘 공청회에서 인쇄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인쇄가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짜면 된다고 생각한다. 인쇄도 전략적으로 잘 꾸미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오늘 여러분이 주신 좋은 의견은 계획안에 첨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성상 신구대학교수가 발제한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안)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안)

## 1. 진흥계획 수립 배경

### 1) 인쇄문화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 세계 인쇄문화산업은 디지털·친환경인쇄와 비즈니스영역 확대를 핵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속하게 전환 중
- 디지털인쇄의 확산 및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맞춤형 인쇄가 증가하면서 '소품종 대량 인쇄'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인쇄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 내수시장은 물론이고 수출 인쇄물에 대해서도 친환경인쇄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도 증대
- 인쇄기술을 활용한 전자인쇄(Printed Electronics)가 세계 각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도 활성화

### 2) 변화하는 인쇄물 소비 환경과 정체된 생산성

- 전체 광고시장에서 온라인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쇄광고의 비중은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스마트미디어 보급 확산으로 전자책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 전자책 시장이 성장하면 인쇄문화산업에도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너지창출을 위한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준비와 대응은 미흡
- 국내 인쇄산업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세계 12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의 고급인쇄물과 특수인쇄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생산 및 가공인프라는 이같은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
- 세계적으로 인쇄물이 정보적 수단 이외에 감성 소비를 매개하는 수단으로 기능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에 따른 R&D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쇄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워크플로 관리와 인쇄 품질의 표준화, 인쇄설비의 개선 등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함
- \*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품질 향상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노후화된 설비가 많다는 점임.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쇄기 중 40% 정도가 10년 이상 사용된 노후장비로 파악되고 있음
- 인쇄문화산업에 새롭게 유입되는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사업체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8년 19.6%에서 2009년에는 0.3%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
-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도 2008년 12.9%에서 2009년 0.3%로 2005년 이후 가장 저조한 증가율을 나타냄

## 2. 진흥의 필요성

### 1) 인새문화산업 인프라 미흡

#### (1) 혁신을 위한 정보·지식기반 및 시설기반 확충

- 산업현실에 대한 정기적 통계조사 및 관련 법제와 환경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창출 및 유통 활성화로 혁신의 원천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이를 지원하는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업실태 및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나 국내 인새산업의 경우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 인새전공 전문인력 부족현상 해소

- 국내에서 인새문화산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고교 2개, 전문대 1개, 4년제 대학 2개 등에 불과. 이에 따라 전문적 기술과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국내 인새문화산업 종사자 중 비전공 출신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
- \* 국내 정규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대부분은 다른 교육기관으로 편입하거나 유사 업종 및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인새문화산업 생산 인력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
- 친환경·디지털인새 확산과 고품질 특수 인새의 대두 등 인새문화산업의 전반적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규교육기관의 실습장비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산학협력의 미흡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어려운 상황
- \* 정규 교육기관에 5년 동안 현대화된 기자재 및 시설 개선과 전공자 해외 유학 지원, 세부전공별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해외 정규교육기관과의 교류 및 국내·외 인새문화산업체와의 산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필요한 시점

#### (3)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새문화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시스템 강화

- 인새문화산업은 디지털화와 친환경화 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국내의 재교육시스템은 취약한 상황임
- 국내 인새문화산업 종사자의 직능향상을 위한 재교육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인새문화협회와 서울인새센터정도이며, 재교육을 위한 설비 역시 미흡한 상황

### 2) 친환경인새 등 새로운 수요에의 대처 부족

#### (1) 친환경인새 활성화를 통한 녹색시대 부응

- 친환경인새기술의 도입은 전 세계적 추세. 세계 각국의 인새업체들은 친환경인새물 제작을 위해 친환경 잉크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국내에서도 친환경 인새공정과 친환경 인새물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 국내의 경우 친환경인새의 도입기에 해당되며, 따라서 정책적 지원이 절실

## (2) 노후 설비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력 향상 견인

- 국내 인쇄업체간 경쟁심화로 도산하는 업체들의 설비가 다른 업체들에 의해 인수되면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노후 설비 이용은 첨단설비 도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한인쇄문화협회는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인쇄기 10,000여대 중 1970년대~1990년대 국내에 도입된 인쇄기가 4800여대에 이르기 때문에 2000년대에 상당수의 신형 인쇄기가 도입되어 기존 인쇄기를 대체하였다 하더라도 소규모 업체들은 중고 설비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는 전체 인쇄기의 절반 정도가 노후 인쇄기인 것으로 추정
- 노후 설비를 이용 중인 중소기업체가 첨단인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및 사용 중인 인쇄시스템의 수출 지원이 필요한 상황

## (3) 인쇄물의 품질 표준화로 고품질 인쇄물 시장 개척

- 국내의 경우 인쇄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색상 및 선명도 등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일부 인쇄사나 출판사를 중심으로 인쇄품질 기준을 설정하여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인쇄물들은 인쇄 부수, 잉크, 기계, 작업 집중도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3) 수출확대 여건 활용 미흡

### (1) 인쇄물 수출 지원 강화

- 국내 인쇄물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국내 인쇄물 수출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0년 수출액은 2009년(약 2억 5천만 달러) 대비 1억 달러 증가한 3억 5천만 달러 기록. 따라서 인쇄물 수출의 뚜렷한 증가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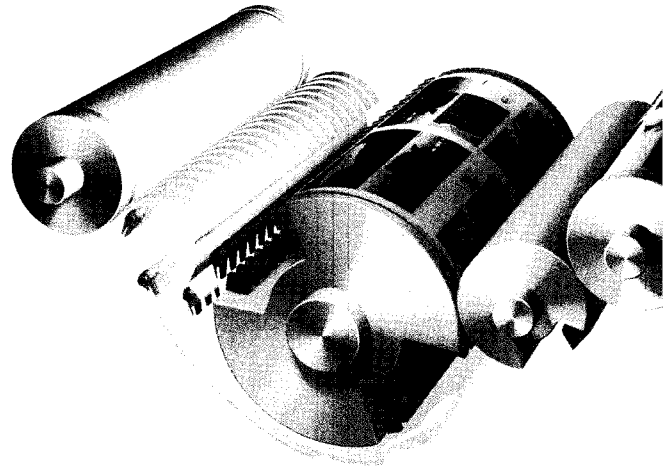




- 국내 인쇄물 수출은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집중. 따라서 수출지역 다변화도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쇄물 수출 종합지원을 위해 대한인쇄문화협회 내에 '인쇄물 수출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인쇄물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센터의 장기적 활동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고, 정책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
- 인쇄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인쇄문화산업계에서는 관세환급 품목에 '인쇄'를 추가하고 관세청이 운용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인쇄문화산업체에 대한 인쇄물 수출 지원 정책 방안 마련을 통해 수출이 대규모 업체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함. 수출기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포함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운영하고 국내 인쇄문화산업 관련 해외 홍보를 지원하며, 해외 시장조사 자료 창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급 지원도 필요
- 인쇄문화산업의 수출은 국내 문화산업 업종 중 게임산업 다음으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수출 대상국 또한 미주와 유럽,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
- 수출시장을 아시아와 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 증가. 수출상담, 해외시장 현황분석, 정보 수집,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윈스톱 지원 체계 강화가 요구됨

## (2) 국제 전시회 개최 및 참가 활성화

-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한국인쇄관 조성 강화를 통한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인쇄산업전시회의 활성화도 필요. 이들 전시회의 경우 최근 해외 대형 인쇄기 생산업체들의 불참으로 규모 축소와 실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국제인쇄산업전시회와 연계하여 인쇄물 수출증진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 인쇄기술 개발 부진

##### (1) 디지털인쇄기술 시장 선점

- 세계 인쇄문화산업은 디지털인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국내의 경우에도 POD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도입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POD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2) 고부가가치형 특수인쇄 활성화로 블루오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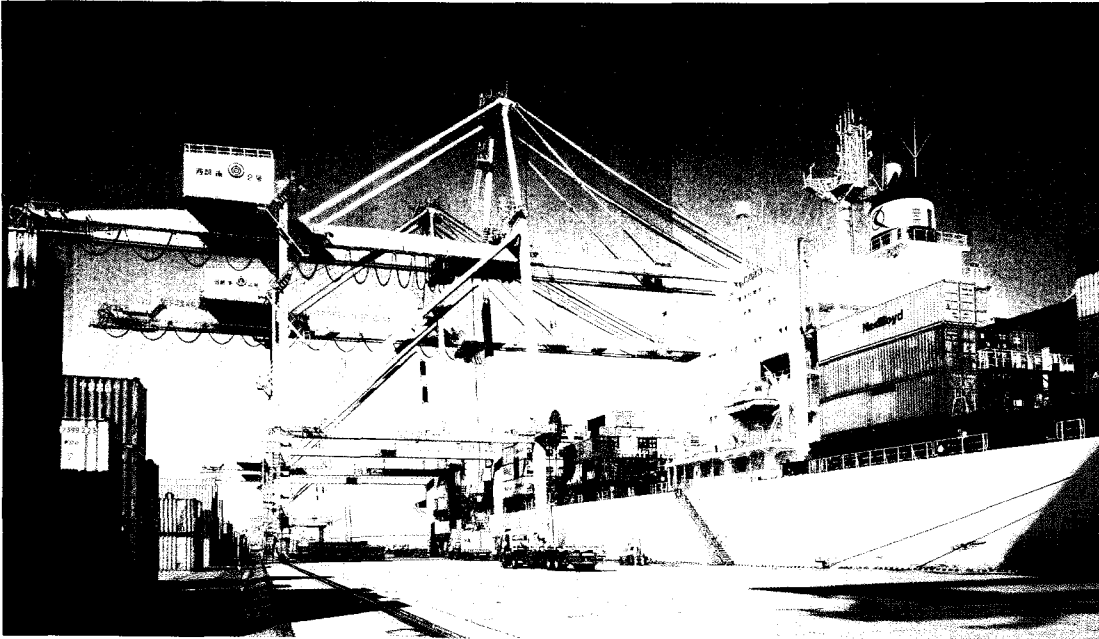
- 향후 세계 인쇄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형 특수인쇄분야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일반 인쇄의 경우, 시장경쟁 심화로 인해 단가가 제조원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 인쇄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
- 다색인쇄, 인라인 코팅(in-line coating), 고정밀 인쇄, 스테레오 인쇄, 특수박스인쇄 등 고품질 특수 인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노력이 필요
- 고품질 특수 인쇄를 위해서는 특수 설비의 도입이 필요함. 고가의 관련 설비 도입에 따르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산업정책 측면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

##### (3) 기술개발력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 해외의 경우 인쇄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산학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특히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인쇄문화산업 관련 산학협력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상황
- 인쇄문화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력 확보가 필수적. 하지만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이해부족과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이 미흡한 실정
- 인쇄업체의 영세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내 인쇄문화산업에 있어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은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4) QR코드 표준화 및 인쇄 공용서체 개발

- 디지털 인쇄의 확산으로 QR코드 인쇄 증가. 따라서 국내 QR코드 기술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이를 위한 QR코드 기술 표준화연구 지원 필요
- 지적재산권 강화와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체개발 지원 필요



## 2. 정책 과제

### 1) 인쇄문화산업 진흥 인프라 확장

- (1)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재단 등에 버금가는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 또는 재단이 설립되어야 함
- (2)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인쇄문화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매력적이며 사회기여적인 산업이 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3) 국내 인쇄문화산업 기존 종사자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인쇄관련 정규교육기관의 질적 고도화 추진
- (4) 국내 인쇄문화산업은 물론 글로벌 인쇄문화산업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의 정기적 실시와 결과의 산업 내 유통 활성화가 필요
- (5)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룬 발간물의 발행 활성화로 혁신을 위한 지식 과 정보의 인프라를 확보해야 함
- (6)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클러스터에 기초한 혁신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2) 친환경인쇄 시스템 도입

- (1) 친환경인쇄는 향후 인쇄문화산업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임. 따라서 국내 인쇄 문화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인증제도와 중소기업체의 친환경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2) 일본과 미국 등 주요 인쇄문화산업 선진국의 경우 친환경인쇄기술 및 재료의 개발과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의 경우 친환경인쇄기술과 재료 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부 개발된 기술과 재료에 대한 활용도도 저조한 상황
- (3) 친환경 인쇄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원동원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인쇄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친환경인쇄에 대한 교육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함

### 3) 인쇄물 수출확대

- (1) 2009년 대비 급증한 2010년 국내 인쇄물 수출 실적을 향후 지속시키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 (2) 국내 인쇄물 관련 전시회의 글로벌화와 수출관련 지원 서비스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
- \*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 인쇄이벤트는 국제 인쇄 산업 전시회(Korea International Printing & Graphics Industry Show)가 있음. 2010년 국제인쇄산업전시회에는 23개국 308개 업체가 참가
- (3) 중소기업의 인쇄물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통해 수출기업의 다양화를 이루어야 함



### 4) 디지털인쇄로의 전환과 신시장 창출

- (1) 기존의 전통적 인쇄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세계 인쇄문화산업계는 디지털인쇄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상황. 주요 인쇄기기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디지털인쇄시스템을 출시하면서 시장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2) 디지털인쇄의 도입은 인쇄문화산업에서 새로운 직업의 탄생과 기존 직업의 소멸을 추동하고 있는 상황
- (3) 국내의 경우 디지털인쇄는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고 있음. 세계적으로 디지털인쇄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국내 디지털인쇄시장의 확산을 추진하면, 이를 통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4) 기존 인쇄문화산업의 시장 포화 및 쇠퇴 경향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쇄문화산업이 지식정보 산업으로 비즈니스 구조 개선을 추진하여야 함
- (5) IT기술 도입과 기획 및 마케팅 역량 개선을 통해 종합 지식정보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
- (6) 인쇄전자산업 등 이종산업과의 융합 비즈니스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
- (7) 국내의 경우 IT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인쇄전자분야의 신기술을 적극 개발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유리

### 5) '직지' 및 국제전시회를 통한 홍보 강화

- (1) 인쇄문화 종주국으로서의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글로벌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지'를 다양한 형태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2) '직지'를 이용한 글로벌한 품질의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인이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아이콘으로 '직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3) '직지'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확보하고 국내외 전시회 및 시상식과 같은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긍정적 글로벌 이미지 확보